

초·중 다문화 가정 학습 부진 학생 교과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Educational Support for Low-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with Reference to Basic Academic Competency of Elementary/Middle School Students

구영산
충남대학교

Youngsan Goo(darkgreenhill@nate.com)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전국의 200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147명의 다문화가정 학생과 전국의 320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760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학습부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학습 일반’과 ‘학습 환경’으로 나누어 설문 문항에 반영하였다. 문항 타당도 검증을 거친 뒤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부진’, ‘학교 급(초등학교·중학교)’, ‘출생지’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다. ‘학습부진’ 변인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모두 학습 동기, 학습 전략, 학습 지원에 대한 거의 모든 문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 환경 중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습 부진학생에게 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학교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학교 급’ 변인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학습 동기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교사 및 교우와의 학습 또한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생은 교사의 학습 지원을 중학생은 교우의 학습 지원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출생지’ 변인과 관련하여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에 비해 중도 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보다 면밀한 언어적, 정서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부모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균형감 있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방향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 | 기초학력 | 학습 특성 | 학습 환경 |

Abstract

The study aims to gain information for developing educational content to support LPSMBs (low-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 procedure involved surveying students about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attitudes related to learning, and learning environment. I analyzed responses from 1,147 students from 200 elementary schools and 3,760 students from 320 middle schools who were LPSMBs and NPSMBs (normally 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LPSMBs in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lower scores on most questionnaires related to learning and learning environment than NPSMBs. LPSMBs in elementary schools showed higher scores on teachers' learning support, LPSMBs in middle school showed higher scores on classmates' learning support. LPSMBs born in foreign countries need to be given opportunities to learn Korean as well as their father's and mother's culture. I give suggestions for how to support LPSMBs' learning and learning environmen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 keyword : |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 Low-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 Basic Academic Competency | Learning | Learning Environment |

* 이 연구는 오상철 외(2013)와 구영산 외(2014)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연구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술, 분석, 해석한 것이다.

접수일자 : 2016년 01월 12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3월 15일

수정일자 : 2016년 03월 15일

교신저자 : 구영산, e-mail : darkgreenhill@nate.com

I. 연구 문제

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국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1]. 새로운 학습자 집단의 출현은 이들과 관련된 새로운 교육적 문제 상황을 야기하는데 그 중 하나가 학습 부진이다.

‘학습 부진’은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문제거 아니다. 그러나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배경의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부진은 새로운 측면이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특성과 그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측면에서 일반 학생과 비교해 보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드러난다[2][3]. 그러한 이유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부진 문제는 ‘학습 부진’이라는 변인과 ‘다문화 가정’이라는 변인이 함께 고려됨으로써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학생 집단 안에서도 여러 변인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성격이 드러나는데, 그 중 하나가 다문화 가정 학생이 소속된 ‘학교 급’이다. 학교 급은 자연적인 분류 기준은 아니나 각 학교 급마다 고유한 성향을 띠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다. 또한 소속 학교 급이 무엇이나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습 성향 또한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다문화 가정 학생 집단도 예외가 아니며 그들의 학교 급에 따른 학습 특성과 학습 환경이 학습 부진 문제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변수가 된다[4].

또 다른 변인으로 언어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 학생과 국외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 학생이 그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는 후자에 비해 출생 직후부터 한국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측면이 강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전자에 비해 한국어로 이주한 이후부터 생활(생존)과 학습을 위해 인위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강하다. 물론 학교 교육에 참여한 이후부터는 두 집단 모두 의도적이며 유목적적인 교육적 실천 안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 및 한국어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속성을 보이게 된다[5].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부진 해결

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다음 세 가지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 집단 안에서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학교 급에 따라 학습 부진을 겪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그렇지 않은 다문화 가정 학생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 학생과 다른 국가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중도 입국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차이를 학교 급별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학습 부진’, ‘학교 급’, ‘국내 출생’ 여부에 따른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특성과 학습 환경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이들의 교육 지원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기초 학력 지원 방향을 수립하는 데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II. 연구 방법

1. 이론적 배경

모든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학습 부진의 문제를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진아 등에 의하면 초·중·고 다문화 가정 학생 집단이 일반 가정 학생 집단에 비해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다문화 가정 학생의 우수 학력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높아지는 특징이 드러난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 학생 중에서도 중도 입국 학생은 한국에 입국한 시기 및 개인별 특징에 따라 학습 편차가 크고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학업 성취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학습 특성과 학습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특성과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부진은 일반적인 학습 부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한 맥락에서 학습 부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 학습자의 학습 동기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학습 부진의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되어 왔다[7-9]. 학습 부

진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학습과 관련하여 학생의 학습 전략 유무는 이들이 스스로 학습이라는 자신의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과 관련된다. 이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실제 학습의 과정에서 주요한 변인이 되는 학생의 심리적 특성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만의 문제이기보다 교사, 동료 학생 또는 친구, 부모의 지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10].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부진을 해결하는 데 주변인의 학습 지원은 부차적인 요소가 아닌 학습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 환경과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이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사용이다[11-13]. 부모의 제한된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 사용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지 않았던 성장 배경은 생활과 학습을 지탱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14].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문제는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사 및 동료 학생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리적 불안과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다[15-17].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정체성 혼란은 자신의 가족 및 가족의 뿌리가 되는 문화적 환경에 대한 긍지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18]. 한편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부진 문제는 가정 내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시에 가족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맺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지원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부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 조사 영역 및 내용

설문 영역		설문 내용
학습	학습 동기	· 학급에서의 대인 관계 · 자기효능감 · 성취 동기 · 학업 스트레스 대처 · 목표 설정
	학습 전략	· 과제 해결 방법 · 과제 해결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

학습 환경		· 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
	학습 지원	· 교사의 학습 지원 · 교우의 학습 지원 · 부모의 학습 지원
	한국어	· 한국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 한국어에 대한 태도
	소속감	· 한국에서의 거주 · 한국 문화에 대한 익숙함 ·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 대한 인식
	가정 내 지원	· 경제적 조건 · 정서적 지원 · 학습 환경 지원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	· 아버지 또는 어머니 나라 언어에 대한 익숙함 · 아버지 또는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익숙함 · 아버지 또는 어머니 나라 사람에 대한 익숙함
사회적 관계	· 학교에서 담임교사와의 관계 · 학교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2. 설문 조사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설문 영역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한 후 관련 전문가(대학 교수, 기관 연구자, 시도 교육청 실무자, 교사) 20명에게 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설문 영역과 설문 내용 설정에 대한 평균 타당도는 4.70, 각 영역별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타당도는 4.74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조사 도구로서의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다.

설문 조사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12일에서 7월 3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이듬해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22일에서 5월 21일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설문 조사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재학 중인 총 5,178개 초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 중 무선 표집된 200개교의 1,14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학교별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시도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55개의 다문화 교육 관련 학교(다문화 예비 학교, 다문화 특별 학급 운영 학교, 다문화 연구 학교 등)를 포함하여 도시와 농촌을 동일 비율로 표집하였다.

2014년 설문 조사 대상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총 11,294명(2013년 기준)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 중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학생을 전국 17개 시도별 분포 비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다. 그 후 상위 320개교의

학생 3,760명이 표집되었다.

설문 조사지는 회송용 봉투와 함께 각 학교로 발송되었으며 다문화 교육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교사의 안내에 따라 설문이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정도에 따라 설문지 작성의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설문에 응한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기초 학력 진단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학습 부진에 해당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분류하였다.

설문 결과 분석은 설문에 응한 학생 중에서 국내 출생 및 중도 입국 여부와 학생의 학습 부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별 기초 통계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 대상별 기초 통계치 단위: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중상위권	학습부진	중상위권	학습부진	
그룹별	598(21.0)	549(19.2)	932(32.7)	774(27.1)	
성별	남	266(9.5)	283(10.1)	370(13.2)	375(13.4)
	여	321(11.5)	257(9.2)	550(19.6)	380(13.6)
도시 규모별	대도시	216(7.6)	186(6.5)	306(10.7)	241(8.4)
	중소도시	178(6.2)	183(6.4)	218(7.6)	265(9.3)
	읍면지역	204(7.2)	180(6.3)	408(14.3)	268(9.4)
다문화 가정 학생 출생별	국내 출생	399(15.0)	317(11.9)	760(28.6)	614(23.1)
	국외 출생	95(3.6)	137(5.2)	172(6.5)	160(6.0)

설문조사 결과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중 학습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초_중상')과 해당하는 학생('초_부진'), 중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중 학습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중_중상')과 해당하는 학생('중_부진') 등 네 집단으로 나누어 F검증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 가정 학생 중에서 국내 출생과 중도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의 설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국내')과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학생('중도')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차이 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III. 분석 결과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상황을 학습 일반과 학습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습 일반

1.1 학습 동기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학습 동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상위권의 학생들이 학습 부진 학생에 비하여 교사 및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 부진 학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해 학습 동기와 관련된 측면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 중학교 중상위권 학생이 초등학교 학습 부진 학생과 중학교 학습 부진 학생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1-1-1]과 같다.

표 3-1-1-1. 성취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학습 동기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나는 선생님과 공 부하는 것 이 좋다.	초_중상	590	3.62	.656	36.679 ***	①)②,③)④
	초_부진	537	3.46	.798		
	중_중상	925	3.41	.763		
	중_부진	765	3.18	.866		
2. 나는 친구들과 함 께 공부하는 것이 좋 다.	초_중상	589	3.68	.630	13.678 ***	①)②,④ ③)④
	초_부진	538	3.52	.789		
	중_중상	925	3.58	.683		
	중_부진	765	3.44	.799		
3. 나는 노 려하면 공 부를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 는다.	초_중상	589	3.71	.612	25.581 ***	①,③)②,④
	초_부진	537	3.53	.768		
	중_중상	925	3.72	.551		
	중_부진	767	3.48	.766		
4. 내 성적 을 더 올리 고 싶다.	초_중상	587	3.77	.528	7.171 ***	③)②,④
	초_부진	538	3.72	.647		
	중_중상	925	3.82	.470		
	중_부진	765	3.71	.631		
5. 성적이 떨어 지면 왜 떨어졌 는지를 생 각해 본다.	초_중상	586	3.24	.899	15.467 ***	①,③)②,④
	초_부진	536	3.03	1.035		
	중_중상	925	3.24	.874		
	중_부진	762	2.98	1.012		
6. 성적을 올려서 칭 칭을 듣고 싶다.	초_중상	584	3.62	.721	13.601 ***	①)②,④ ③)④
	초_부진	537	3.47	.864		
	중_중상	925	3.53	.766		
	중_부진	762	3.34	.949		

* $p < .05$, ** $p < .01$, *** $p < .001$

①=초등 중상위, ②=초등 학습부진, ③=중학생 중상위, ④=중학생 학습부진

국내 출생 여부에 따른 집단 간 학습 동기를 비교해 보면, 국내 출생 여부와 상관없이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교사 및 교사와의 공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1-1-2]와 같다.

표 3-1-1-2. 국내 출생 여부에 따른 학습 동기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나는 선생님과의 관계를 좋아한다.	초_국내	844	3.58	.687	24.374 ***	①,②>③,④
	초_중도	257	3.49	.766		
	중_국내	1360	3.31	.821		
	중_중도	330	3.29	.813		
2. 나는 친구들과 공부하는 것이 좋다.	초_국내	844	3.62	.677	4.560 **	①>③,④
	초_중도	257	3.56	.774		
	중_국내	1360	3.53	.737		
	중_중도	330	3.47	.756		
3. 나는 노력하면 부를 더 쌓을 수 있다고 믿는다.	초_국내	843	3.65	.660	2.510	-
	초_중도	257	3.56	.763		
	중_국내	1362	3.63	.651		
	중_중도	330	3.55	.731		
4. 내 성적을 더 올리고 싶다.	초_국내	842	3.76	.554	3.844 **	③>②
	초_중도	257	3.65	.756		
	중_국내	1361	3.78	.540		
	중_중도	329	3.73	.597		
5. 성적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본다.	초_국내	839	3.18	.947	2.780 *	①>②
	초_중도	257	2.98	1.055		
	중_국내	1360	3.12	.941		
	중_중도	327	3.11	.978		
6. 성적을 올려서 칭찬을 듣고 싶다.	초_국내	839	3.59	.761	10.520 ***	①>③>④
	초_중도	257	3.44	.887		
	중_국내	1360	3.48	.835		
	중_중도	327	3.29	.936		

* $p < .05$, ** $p < .01$, *** $p < .001$
 ①=초등 국내, ②=초등 중도입국, ③=중학생 국내, ④=중학생 중도입국

1.2 학습 전략

성취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학습 전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집단 간 학습 전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것과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문항에 대해 학교 급의 구분 없이 중상위권 학생이 학습 부진 학생에 비해 평균이 높다. 교사에게 질문하는 정도와 학습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정도에서는 중학교 학습 부진 학생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업 시간에 어려운 것을 친구에게 묻는다는 문항에서는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평균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또래 친구에게 학습적인 도움을 보다 많이 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1-2-1]과 같다.

표 3-1-2-1. 성취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학습 전략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한다.	초_중상	589	2.81	.859	31.080 ***	①,③>②,④
	초_부진	536	2.55	1.000		
	중_중상	924	2.85	.898		
	중_부진	764	2.47	.978		
2.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은 선생님에게 묻는다.	초_중상	586	2.87	.960	26.949 ***	①,②,③>④
	초_부진	536	2.71	1.065		
	중_중상	924	2.82	.982		
	중_부진	766	2.44	1.033		
3. 수업 시간에 어려운 것은 친구에게 묻는다.	초_중상	585	3.03	.969	28.575 ***	③>①,④>②
	초_부진	537	2.85	1.093		
	중_중상	922	3.31	.825		
	중_부진	764	3.06	.986		
4. 학습계획을 세워 공부를 한다.	초_중상	589	2.83	.957	54.375 ***	①>②,③>④
	초_부진	534	2.46	1.086		
	중_중상	921	2.43	1.028		
	중_부진	761	2.11	.999		
5.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한다.	초_중상	587	3.17	.806	52.249 ***	①>②>③>④
	초_부진	534	2.75	.985		
	중_중상	923	3.23	.756		
	중_부진	762	2.84	.931		

* $p < .05$, ** $p < .01$, *** $p < .001$
 ①=초등 중상위, ②=초등 학습부진, ③=중학생 중상위, ④=중학생 학습부진

국내 출생 여부에 따른 집단 유형별 학습 전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한다.’와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한다.’는 문항에서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이나 어려운 것을 묻는 대상에서 초등학생은 교사에게 묻는다는 응답이, 중학생은 친구에게 묻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1-2-2]와 같다.

표 3-1-2-2. 국내 출생 여부에 따른 학습 전략의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한다.	초_국내	843	2.70	.917	.926	-
	초_중도	257	2.74	.966		
	중_국내	1359	2.66	.954		
	중_중도	329	2.74	.956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2. 수업 시간 동안에 모르는 것은 선생님에게 묻는다.	초_국내	842	2.78	1.027	6.206 ***	①,②>④
	초_중도	257	2.89	.992		
	중_국내	1360	2.67	1.014		
	중_중도	330	2.59	1.060		
3. 수업 시간 동안 어려운 것은 친구에게 묻는다.	초_국내	841	2.90	1.043	19.028 ***	③>①,②<④>①
	초_중도	257	3.00	1.008		
	중_국내	1357	3.20	.905		
	중_중도	329	3.19	.931		
4. 학습계획을 세워 공부한다.	초_국내	841	2.70	1.019	34.204 ***	①>③,④<②>③
	초_중도	255	2.60	1.067		
	중_국내	1354	2.25	1.018		
	중_중도	328	2.41	1.057		
5.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한다.	초_국내	841	2.98	.913	1.447	-
	초_중도	256	3.00	.914		
	중_국내	1356	3.06	.853		
	중_중도	329	3.04	.893		

* $p < .05$, ** $p < .01$, *** $p < .001$
 ①=초등 국내, ②=초등 중도입국, ③=중학생 국내, ④=중학생 중도입국

1.3 학습 지원

성취 수준에 따라 교사, 친구, 부모의 학습 지원 정도를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의 학습 지원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그 정도를 높게 느끼고 있으며, 친구들의 학습 지원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부모의 학습 지원에서는 학교 급과 상관없이 중상위권 학생이 학습 부진 학생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1-3-1]과 같다.

표 3-1-3-1. 성취 수준에 따른 교사/친구/부모 학습 지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잘 가르쳐 주신다.	초_중상	589	3.65	.635	16.426 ***	①>②,④<③>④
	초_부진	537	3.52	.758		
	중_중상	926	3.57	.607		
	중_부진	763	3.40	.755		
2.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잘 가르쳐 준다.	초_중상	588	3.25	.858	39.077 ***	①>②<③>①,④>②
	초_부진	538	3.10	.969		
	중_중상	925	3.55	.639		
	중_부진	761	3.35	.819		
3.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숙제나 시험 준비를 잘 도와준다.	초_중상	589	3.11	1.022	15.537 ***	①,③>②,④
	초_부진	537	2.78	1.151		
	중_중상	925	3.04	.947		
	중_부진	761	2.83	1.043		

* $p < .05$, ** $p < .01$, *** $p < .001$
 ①=초등 중상위, ②=초등 학습부진, ③=중학생 중상위, ④=중학생 학습부진

출생 국가에 따른 집단 간 교사 및 친구의 학습 지원 정도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국내 출생 학생이 중학교 국내 출생 학생에 비해 교사의 지원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친구의 학습 지원에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그 지원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학습 지원에서는 집단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1-3-2]와 같다.

표 3-1-3-2. 출생지에 따른 교사/친구/부모 학습 지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잘 가르쳐 주신다.	초_국내	843	3.59	.681	3.661 *	①>③
	초_중도	257	3.55	.764		
	중_국내	1359	3.50	.679		
	중_중도	330	3.48	.702		
2.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잘 가르쳐 준다.	초_국내	843	3.20	.904	27.442 ***	③,④>①,②
	초_중도	257	3.11	.944		
	중_국내	1356	3.46	.724		
	중_중도	330	3.45	.767		
3.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숙제나 시험 준비를 잘 도와준다.	초_국내	843	2.97	1.070	1.003	-
	초_중도	256	2.94	1.143		
	중_국내	1357	2.97	.976		
	중_중도	329	2.87	1.077		

* $p < .05$, ** $p < .01$, *** $p < .001$
 ①=초등 국내, ②=초등 중도입국, ③=중학생 국내, ④=중학생 중도입국

2. 학습 환경

2.1 한국어

한국어 능력 및 태도와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상위권 학생이 초등학교 학습 부진 학생에 비해 한국어 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습 부진 학생이 초등학교 학습 부진 학생보다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2-1-1]과 같다.

표 3-2-1-1. 성취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한국어 능력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한국어로 된 글을 편하게 읽는다.	초_중상	598	3.87	.386	57.594 ***	①>②<③>④>②
	초_부진	546	3.57	.727		
	중_중상	930	3.91	.362		
	중_부진	772	3.81	.523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2. 한국어로 글을 편하게 쓴다.	초 중상	597	3.87	.378	76.746 ***	①)② ③)④)②
	초 부진	546	3.46	.859		
	중 중상	929	3.89	.395		
	중 부진	772	3.79	.552		
3. 한국어로 편하게 이야기 한다.	초 중상	596	3.91	.335	29.642 ***	①,③)④)②
	초 부진	545	3.70	.655		
	중 중상	927	3.91	.340		
	중 부진	773	3.83	.501		
4. 한국어로 하는 말을 편하게 이해한다.	초 중상	597	3.84	.408	35.398 ***	①)② ③)④)②
	초 부진	543	3.62	.677		
	중 중상	928	3.89	.380		
	중 부진	770	3.78	.550		
5.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초 중상	597	3.86	.470	16.061 ***	①,③,④)②
	초 부진	541	3.74	.607		
	중 중상	927	3.91	.344		
	중 부진	770	3.85	.460		

* $\rho < .05$, ** $\rho < .01$, *** $\rho < .001$

①=초등 중상위, ②=초등 학습부진, ③=중학생 중상위, ④=중학생 학습부진

학교 급과 국내 출생 여부에 따라 한국어 능력 및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교 급과 상관없이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이 중도 입국 학생에 비해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2-1-2]와 같다.

표 3-2-1-2. 국내 출생 여부에 따른 한국어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한국어로 된 글을 편하게 읽는다.	초 국내	860	3.79	.556	82.068 ***	③)①)②,④
	초 중도	261	3.49	.763		
	중 국내	1371	3.93	.299		
	중 중도	331	3.59	.743		
2. 한국어로 글을 편하게 쓴다.	초 국내	858	3.77	.618	86.949 ***	①)②,④ ③)①,④)②
	초 중도	260	3.40	.843		
	중 국내	1369	3.91	.344		
	중 중도	332	3.55	.754		
3. 한국어로 편하게 이야기 한다.	초 국내	856	3.88	.416	97.202 ***	③)①)②,④
	초 중도	259	3.54	.769		
	중 국내	1369	3.94	.283		
	중 중도	331	3.59	.696		
4. 한국어로 하는 말을 편하게 이해한다.	초 국내	856	3.83	.461	108.920 ***	①)②,④ ③)①,④)②
	초 중도	259	3.41	.779		
	중 국내	1368	3.91	.361		
	중 중도	330	3.55	.693		
5.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초 국내	854	3.90	.378	102.083 ***	①,③)④)②
	초 중도	258	3.48	.852		
	중 국내	1366	3.94	.283		
	중 중도	331	3.65	.655		

* $\rho < .05$, ** $\rho < .01$, *** $\rho < .001$

①=초등 국내, ②=초등 중도입국, ③=중학생 국내, ④=중학생 중도입국

2.2 소속감

학교 급별로 성취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의 인사업이 익숙하다.’, ‘한국 음식이 익숙하다.’, ‘나는 한국 사람이길 바란다.’는 문항에 대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학습 부진 학생이 나머지 3개 집단에 비해 한국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2-2-1]과 같다.

표 3-2-2-1. 성취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소속감 정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	초 중상	598	3.79	.504	3.976 **	①)②
	초 부진	544	3.67	.670		
	중 중상	930	3.75	.545		
	중 부진	771	3.74	.573		
2.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초 중상	598	3.57	.695	2.100	-
	초 부진	545	3.47	.813		
	중 중상	929	3.55	.716		
	중 부진	771	3.51	.795		
3. 한국에서의 인사업이 익숙하다.	초 중상	598	3.87	.432	11.330 ***	①,③,④)②
	초 부진	547	3.78	.578		
	중 중상	929	3.92	.321		
	중 부진	770	3.87	.381		
4. 한국 음식을 익숙하다.	초 중상	597	3.81	.494	18.796 ***	①,④)② ③)①,②
	초 부진	540	3.70	.661		
	중 중상	927	3.89	.384		
	중 부진	767	3.85	.433		
5. 나는 한국 사람이길 바란다.	초 중상	595	3.64	.678	4.667 **	①,③,④)②
	초 부진	543	3.50	.869		
	중 중상	923	3.61	.730		
	중 부진	768	3.63	.715		

* $\rho < .05$, ** $\rho < .01$, *** $\rho < .001$

①=초등 중상위, ②=초등 학습부진, ③=중학생 중상위, ④=중학생 학습부진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이 중도 입국 학생에 비해 한국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2-2-2]와 같다.

표 3-2-2-2. 국내 출생 여부에 따른 소속감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	초 국내	860	3.80	.524	34.296 ***	①,③)②,④
	초 중도	258	3.53	.744		
	중 국내	1370	3.80	.506		
	중 중도	331	3.53	.697		
2.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초 국내	860	3.61	.683	43.734 ***	①,③)②,④
	초 중도	258	3.22	.887		
	중 국내	1369	3.61	.697		
	중 중도	331	3.22	.885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3. 한국에서의 인사업이 익숙하다.	초_국내	860	3.90	.396	70.253 ***	①,③)②,④
	초_중도	259	3.63	.717		
	중_국내	1368	3.94	.258		
	중_중도	331	3.69	.552		
4. 한국 음식이 익숙하다.	초_국내	856	3.84	.477	66.304 ***	③)①)④)②
	초_중도	257	3.54	.765		
	중_국내	1366	3.92	.306		
	중_중도	328	3.66	.640		
5. 나는 한국 사람이 될 바란다.	초_국내	857	3.69	.668	105.20 ***	①,③)②,④
	초_중도	259	3.19	.964		
	중_국내	1362	3.74	.589		
	중_중도	329	3.11	.967		

* α .05, ** α .01, *** α .001
 ①=초등 국내, ②=초등 중도입국, ③=중학생 국내, ④=중학생 중도입국

2.3 가정 내 지원

가정 내 지원 정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다문화 가정 중상위권 학생이 학습 부진 학생보다 가정 내 지원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였다.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문항에서는 초등학교 중상위권 학생의 평균이 중학교 중상위권 학생 및 학습 부진 학생의 평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차이가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학교 급에 따른 차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2-3-1]과 같다.

표 3-2-3-1. 성취 수준에 따른 가정 내 지원 정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우리 집이 편안하고 좋다.	초_중상	592	3.86	.418	9.363 ***	①,③)②
	초_부진	538	3.72	.662		
	중_중상	932	3.84	.453		
	중_부진	772	3.77	.552		
2. 나는 학원에 다닌다.	초_중상	591	3.03	1.344	51.117 ***	①)②)③,④
	초_부진	537	2.53	1.450		
	중_중상	930	2.30	1.440		
	중_부진	770	2.12	1.393		
3. 부모님은 내가 학습에 필요한 걸 이야기하면 사주시다.	초_중상	591	3.48	.796	22.299 ***	③)①,④)②
	초_부진	536	3.33	.894		
	중_중상	930	3.66	.651		
	중_부진	765	3.52	.746		
4.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초_중상	589	3.25	.940	8.698 ***	①)③,④
	초_부진	538	3.11	1.003		
	중_중상	926	3.09	.966		
	중_부진	765	2.98	1.032		
5. 우리 집에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초_중상	589	3.64	.749	14.797 ***	①,③)②,④
	초_부진	534	3.36	.987		
	중_중상	928	3.60	.715		
	중_부진	767	3.47	.842		

* α .05, ** α .01, *** α .001
 ①=초등 중상위, ②=초등 학습부진, ③=중학생 중상위, ④=중학생 학습부진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국내 출생 여부에 따라 가정 내 지원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 집에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국내 출생 학생이 중도 입국 학생에 비해 가정 내 지원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원을 다니는 정도를 살펴본 문항에서 학교 급에 상관없이 국내 출생 학생이 중도 입국 학생에 비해 학원을 다니는 경향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습 준비물에 대한 문항에서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2-3-2]와 같다.

표 3-2-3-2. 국내 출생 여부에 따른 가정 내 지원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우리 집이 편안하고 좋다.	초_국내	845	3.86	.450	29.365 ***	①,③)②,④
	초_중도	257	3.65	.709		
	중_국내	1372	3.85	.436		
	중_중도	332	3.63	.681		
2. 나는 학원에 다닌다.	초_국내	845	2.90	1.399	47.706 ***	①)②,③)④
	초_중도	253	2.47	1.416		
	중_국내	1368	2.28	1.430		
	중_중도	332	1.98	1.363		
3. 부모님은 내가 학습에 필요한 걸 이야기하면 사주시다.	초_국내	842	3.44	.843	13.538 ***	③)①,②)④)②
	초_중도	254	3.34	.878		
	중_국내	1364	3.61	.698		
	중_중도	331	3.56	.700		
4.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초_국내	843	3.21	.970	12.300 ***	①,③)④
	초_중도	254	3.05	1.022		
	중_국내	1361	3.09	.961		
	중_중도	330	2.82	1.111		
5. 우리 집에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초_국내	839	3.52	.879	1.789	-
	초_중도	254	3.42	.907		
	중_국내	1365	3.55	.770		
	중_중도	330	3.51	.811		

* α .05, ** α .01, *** α .001
 ①=초등 국내, ②=초등 중도입국, ③=중학생 국내, ④=중학생 중도입국

2.4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

학교 급 및 성취 수준에 따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언어, 명절, 음식, 사람)에 대한 이해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아버지’ 나라와 관련된 언어, 명절, 음식, 사람에 대한 문항과 ‘어머니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안다.’는 문항이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중상위권

학생 및 학습 부진 학생과 초등학교 중상위권 학생이 초등학교 학습 부진 학생에 비해 ‘아버지’ 나라의 언어, 명절, 음식, 사람 등을 이해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이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습 부진 학생에 비해 ‘어머니’ 나라의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2-4-1]과 같다.

표 3-2-4-1. 성취 수준에 따른 아버지/어머니 문화 이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아빠 나라의 말을 할 줄 안다.	초 중상	561	3.84	.563	12.423 ***	①,③,④)②
	초 부진	514	3.73	.731		
	중 중상	928	3.90	.446		
	중 부진	769	3.88	.477		
2. 엄마 나라의 말을 할 줄 안다.	초 중상	561	2.89	1.088	2.725 *	-
	초 부진	516	2.88	1.223		
	중 중상	931	2.75	1.151		
	중 부진	767	2.77	1.179		
3. 아빠 나라의 명절을 안다.	초 중상	560	3.70	.744	39.195 ***	③)①,④)②
	초 부진	513	3.43	.980		
	중 중상	926	3.84	.516		
	중 부진	767	3.78	.652		
4. 엄마 나라의 명절을 안다.	초 중상	560	2.75	1.166	.513	-
	초 부진	515	2.71	1.246		
	중 중상	927	2.79	1.140		
	중 부진	767	2.76	1.216		
5. 아빠 나라의 음식을 안다.	초 중상	558	3.85	.505	14.631 ***	①,④)② ③)①,②
	초 부진	511	3.76	.648		
	중 중상	927	3.93	.316		
	중 부진	769	3.88	.437		
6. 엄마 나라의 음식을 안다.	초 중상	561	3.36	.923	2.990 *	-
	초 부진	516	3.35	.945		
	중 중상	927	3.47	.807		
	중 부진	770	3.42	.920		
7. 아빠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안다.	초 중상	555	3.74	.643	30.690 ***	①,④)② ③)①,②
	초 부진	513	3.56	.853		
	중 중상	925	3.86	.478		
	중 부진	768	3.82	.510		
8. 엄마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안다.	초 중상	561	3.18	1.003	7.372 ***	③,④)②
	초 부진	514	3.05	1.095		
	중 중상	928	3.30	.929		
	중 부진	767	3.22	1.017		

* $p < .05$, ** $p < .01$, *** $p < .001$
 ①=초등 중상위, ②=초등 학습부진, ③=중학생 중상위, ④=중학생 학습부진

국내 출생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나라의 문화(언어, 명절, 음식, 사람) 이해에서 국내 출생 학생이 중도 입학 학생에 비해 더 높은 평균을 보인 반면, ‘어머니’ 나라의 문화 이해에서는 중도

입국 학생의 평균이 국내 출생 학생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2-4-2]와 같다.

표 3-2-4-2. 국내 출생 여부에 따른 문화 이해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아빠 나라의 말을 할 줄 안다.	초 국내	845	3.83	.612	20.460 ***	③)①)②,④
	초 중도	254	3.69	.733		
	중 국내	1366	3.93	.384		
	중 중도	331	3.75	.673		
2. 엄마 나라의 말을 할 줄 안다.	초 국내	845	2.69	1.160	91.149 ***	②,④)①,③
	초 중도	256	3.41	.937		
	중 국내	1368	2.58	1.154		
	중 중도	330	3.50	.876		
3. 아빠 나라의 명절을 안다.	초 국내	843	3.67	.782	53.508 ***	③)①,④)②
	초 중도	253	3.33	1.011		
	중 국내	1363	3.87	.492		
	중 중도	330	3.58	.822		
4. 엄마 나라의 명절을 안다.	초 국내	843	2.58	1.233	47.420 ***	②,④)①,③
	초 중도	254	3.19	1.047		
	중 국내	1365	2.65	1.182		
	중 중도	329	3.31	.979		
5. 아빠 나라의 음식을 안다.	초 국내	839	3.87	.489	33.394 ***	③)①,④)②
	초 중도	254	3.64	.740		
	중 국내	1365	3.94	.321		
	중 중도	331	3.80	.536		
6. 엄마 나라의 음식을 안다.	초 국내	843	3.30	.943	17.816 ***	②)① ④)①,③
	초 중도	256	3.55	.834		
	중 국내	1368	3.39	.884		
	중 중도	329	3.69	.704		
7. 아빠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안다.	초 국내	840	3.76	.647	47.280 ***	③)①,④)②
	초 중도	253	3.40	.956		
	중 국내	1363	3.87	.448		
	중 중도	330	3.73	.632		
8. 엄마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안다.	초 국내	842	3.05	1.069	22.779 ***	②,③)① ④)①,③
	초 중도	255	3.38	.909		
	중 국내	1365	3.20	.994		
	중 중도	330	3.54	.810		

* $p < .05$, ** $p < .01$, *** $p < .001$
 ①=초등 국내, ②=초등 중도입국, ③=중학생 국내, ④=중학생 중도입국

2.5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다문화 가정 중상위권 학생과 학습 부진 학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나는 친구 집에서 함께 놀 때가 있다.’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학교 중상위권 학생이 중학교 및 초등학교 학습 부진 학생에 비해 교사 및 교우 관계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중상위권 학생이 학습 부진 학생에 비해 그리고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구들과 우

리 집에서 함께 놀 때가 많다.’는 문항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급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사후검증 결과를 보더라도 초등학교 중상위권 학생이 중학교 학생에 비해, 초등학교 학습 부진 학생이 중학교 중상위권 학생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와 ‘학교에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는 문항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왕따나 놀림,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중학생에 비해 보다 민감하게 응답한 경우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2-5-1]과 같다.

표 3-2-5-1. 성취 수준에 따른 사회적 관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선생님 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초_중상	585	3.31	.790	8.629 ***	③)②,④
	초_부진	534	3.20	.876		
	중_중상	926	3.40	.676		
	중_부진	764	3.29	.722		
2. 나는 선생님을 아한다.	초_중상	589	3.48	.790	9.496 ***	①,③)②,④
	초_부진	534	3.26	.953		
	중_중상	925	3.46	.731		
3. 우리 반 친구 들은 내 말을 잘 들어준다.	초_중상	592	3.35	.851	5.851 ***	③)①,④)②
	초_부진	539	3.05	.982		
	중_중상	925	3.58	.622		
4. 나는 우리 반 친구 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	초_중상	588	3.48	.732	39.694 ***	③)①,④)②
	초_부진	538	3.28	.881		
	중_중상	925	3.68	.531		
5. 친구들과 과 우리 집 에서 함께 놀 때가 많다.	초_중상	591	2.65	1.150	7.612 ***	①)③,④)②)③
	초_부진	536	2.58	1.180		
	중_중상	922	2.39	1.147		
6. 나는 친구 집에서 함께 놀 때가 많다.	초_중상	589	2.72	1.098	.340	-
	초_부진	537	2.72	1.167		
	중_중상	908	2.76	1.095		
7. 학교에서 친구들 에게 놀림 을 당한 적이 있다.	초_중상	590	2.98	1.147	328.590 ***	①,②)③,④
	초_부진	534	2.88	1.186		
	중_중상	920	1.64	.966		
8. 학교에 내가 미워 하는 친구 가 있다.	초_중상	591	2.60	1.207	32.136 ***	①,②)③,④
	초_부진	538	2.49	1.248		
	중_중상	920	2.10	1.085		
	중_부진	761	2.15	1.139		

* $p < .05$, ** $p < .01$, *** $p < .001$

①=초등 중상위, ②=초등 학습부진, ③=중학생 중상위, ④=중학생 학습부진

국내 출생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중도 입국 학생이 중학교 국내 출생 학생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이다. 또한 초등학교 국내 출생 학생이 초등학교 중도 입국 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초등학교에 비해 교우 관계에서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와 ‘학교에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는 문항에서는 앞서 [표 3-2-5-1]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2-5-2]와 같다.

표 3-2-5-2. 국내 출생 여부에 따른 사회적 관계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사후 검증	
1.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초_국내	839	3.25	.805	4.153 **	④)①
	초_중도	254	3.30	.845		
	중_국내	1359	3.33	.702		
	중_중도	331	3.40	.687		
2. 나는 선생님을 아한다.	초_국내	842	3.38	.887	4.265 **	④)①,③
	초_중도	254	3.46	.803		
	중_국내	1360	3.38	.775		
	중_중도	331	3.54	.714		
3. 우리 반 친구 들은 내 말을 잘 들어준다.	초_국내	845	3.26	.894	40.032 ***	①)②)③,④)①,②
	초_중도	256	3.06	.960		
	중_국내	1362	3.54	.667		
	중_중도	329	3.46	.744		
4.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 준다.	초_국내	841	3.43	.769	26.182 ***	①)②)③,④)①,②
	초_중도	256	3.29	.866		
	중_국내	1357	3.63	.583		
	중_중도	330	3.57	.645		
5. 친구들과 우리 집에서 함께 놀 때가 많다.	초_국내	845	2.63	1.152	6.441 ***	①)③
	초_중도	254	2.56	1.184		
	중_국내	1356	2.41	1.146		
	중_중도	328	2.45	1.172		
6. 나는 친구 집에서 함께 놀 때가 많다.	초_국내	841	2.77	1.118	3.350 *	-
	초_중도	255	2.58	1.164		
	중_국내	1337	2.76	1.076		
	중_중도	318	2.61	1.125		
7. 학교에서 친구들 에게 놀림 을 당한 적이 있다.	초_국내	842	3.01	1.147	344.411 ***	①)②)④)③
	초_중도	253	2.73	1.148		
	중_국내	1350	1.62	.959		
	중_중도	326	1.82	1.019		
8. 학교에 내가 미워 하는 친구 가 있다.	초_국내	845	2.61	1.217	37.892 ***	①,②)③,④
	초_중도	255	2.53	1.232		
	중_국내	1353	2.13	1.111		
	중_중도	328	2.08	1.105		

* $p < .05$, ** $p < .01$, *** $p < .001$

①=초등 국내, ②=초등 중도입국, ③=중학생 국내, ④=중학생 중도입국

IV. 논의 및 결론

1. 학습 부진 여부에 따른 기초 학력 향상 방안

학습 부진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학습 일반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습 동기 측면에서 중학교 중상위권 학생이 중학교 학습 부진 학생에 비해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다문화 가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 부진 학생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본 조사 결과를 참조할 때 성적 향상과 같은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가지는 것이 학생의 학습 동기 및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학습 지원 측면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은 학습 부진 학생에 비해 교사와 급우로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으며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도 숙제나 시험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교사, 급우, 가족, 친척 등과 같은 주변인들의 학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볼 수 있다.

학습 환경과 관련된 변인 중 한국어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중상위권 학생이 학습 부진 학생에 비해 자신의 한국어 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을 더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 및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학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가정 내 지원과 관련된 모든 문항에서 학습 부진 여부에 따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거 환경이 주는 안락함, 사설 교육 기관에 보내는 등의 교육적 관심과 경제적 여유, 학습 및 여가를 위한 시간과 경제적 능력 등이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력 향상에 매우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중상위권 학생이 학습 부진 학생에 비해 ‘아버지’ 나라와 관련된 언어, 명절, 음식, 사람에 대한 문항과 ‘어머니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안다.’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드러냈다[19]. 또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

문화 가정 중상위권 학생이 학습 부진 학생에 비해 교사 및 교우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20]. 이를 통해 학습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 유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REDE (the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Diversity, Excellence)에서 제안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기준과도 일치한다[21].

2. 학교 급에 따른 기초 학력 향상 방안

학교 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습 일반과 관련하여 학습 동기 측면에서 초등학교생이 중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 장면에서의 대인 관계, 자기효능감, 성취 동기, 학업 스트레스 대처, 목표 설정 등에서 중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이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에 비해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중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와 관련된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

학습 동기와 관련하여 국내 출생 여부와 상관없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에 비해 교사 및 교우와의 학습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초등학교생이 중학생에 비해 더 만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내 출생 여부와 큰 관련 없이 다문화 가정 학생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학습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국내 출생 학생이 중학교 국내 출생 학생에 비해 교사의 지원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전략의 측면에서 교사에게 질문하는 정도와 학습 계획을 세우는 정도에서 중학교 학습 부진 학생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수업 시간에 어려운 것을 친구에게 묻는다는 문항에서는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교생의 평균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유사한 맥락에서 학습 지원과 관련하여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교생이 교사의 학습 지원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생이 친구의 학습 지원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시간에 자신이 모르는 것을

묻는 대상에서도 초등학생의 경우는 교사에게 묻는다는 응답이, 중학생의 경우는 친구에게 묻는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은 교사를, 중학생은 또래 친구를 자신의 학습에 더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습 관계에서의 속성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속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학습 부진 학생이 나머지 3개 집단의 학생에 비해 한국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나라의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 또한 중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습 부진 학생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 나라의 어느 쪽 문화와 사람에도 익숙함이나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습 부진 학생이 서로 다른 언어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 자신을 노출할 수 있도록 관련 학습 경험이 균형감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와 ‘학교에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는 문항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초등학생이 해당 문항에 대해 중학생에 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으나, 학교 급에 따른 다문화 가정 학생 간 유의한 차이 중의 하나인 만큼,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의 기초 학력 지원을 위해 대인 관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출생 여부에 따른 기초 학력 향상 방안

설문 결과 학교 급에 상관없이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이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학생에 비해 한국어 능력 및 태도와 한국에 대한 소속감의 항목별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해 보다 면밀한 언어적, 정서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가정 내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이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학생에 비해 가정 내 지원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원에 다니는 정도를 조사한 문항에서도 학교 급에 상관없이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이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학생에 비해 그 빈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기초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학부모 교육과 같은 학부모 대상의 교수학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아버지’ 나라의 문화(언어, 명절, 음식, 사람) 이해 정도에서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이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학생에 비해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반면, ‘어머니’ 나라의 문화 이해에서는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학생이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에 비해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출생지에 따라 ‘아버지’ 나라의 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가 불균형을 보이는 것으로, 학생의 문화적 배경이 학습과 학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할 교육적 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인 관계와 관련하여 중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이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에 비해 자신의 교우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초등학교 안에서는 다문화 가정 국내 출생 학생이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학생에 비해 자신의 교우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네 집단 중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학생의 교우 관계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습 부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학습 부진 학생의 유형이 학습 장애, 학습 속도, 학습 결손,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돌봄 부족 등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22], 해당 유형을 파악하면 부진 원인을 고려한 중층적이면서도 다면적인 지도가 가능해진다[2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습 특성 및 학습 환경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학습 부진 학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학습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입각하여 다문화 가정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콘텐츠 개발의 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부진에 대한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학생 안에서 집단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교육부,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팀, 2015.
- [2] 오상철, 이화진, 장경숙, 구영산, *다문화 학습부진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보고 PRI 2013-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 [3] 구영산, 이화진, 이혜원, 장의선,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보고 PRI 2014-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 [4] 구영산, “다문화 예비학교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연구: 중학교 장(場)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제42권, 제3호, pp.35-69, 2015.
- [5] 구영산, “다문화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을 고려한 국어 기초학력 개념의 보완 방안,” *선청어문*, 제42권, 제0호, pp.161-185, 2015.
- [6] 신진아, 김경희, 박상욱, 김영란, 이정우, 서민철, 조윤동, 김현경, 이영주, 최숙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교과별 성취 특성 분석*, 연구보고 PRE 2012-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 [7] 김수동, 이화진, 유준희, 임재훈, *학습부진아 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 7과제: 학습부진아 지도 프로그램 연구*, 연구보고 RRC 98-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 [8] 오상철, 이화진, 김태은, 노원경, 김영빈, *학습부진 학생 지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연구: 강점 기반 학습도움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 RRI 2011-6-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 [9] P. A. Spevak and M. Karinch, *Empowering Underachievers: New Strategies to Guide Kids to Personal Excellence*, NJ: New Horizon Press, 2006.
- [10] 류방란, 김경애, 이재분, 송혜정, 강일국,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보고 RR 2012-01, 한국교육개발원, 2012.
- [11] 원진숙,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 원진숙(편),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교육*, 사회평론, 2010.
- [12] 송현정, 양정실,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 정책 방향 연구*, 연구보고 RRI 2010-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 [13] 구영산, “다문화 특별학급 학습자의 공간 인식과 언어 학습의 관계”, *한국초등국어교육*, 제54집, pp.7-35, 2014.
- [14]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교육인적자원부, 2006.
- [15] 오성배,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제32권, 제3호, pp.61-83, 2005.
- [16] 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다문화 청소년 이해론*, 서울: 양서원, 2007.
- [17] 김정원, 이혜영, 배은주, 허창수,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연구보고 RR 2005-5, 한국교육개발원, 2005.
- [18] 조영달, 구정화, 이혁규, *다문화 가정 학생 DB 현황 및 유형별 교육 요구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2009.
- [19] 관련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 학습 부진 학생의 주된 특징 중의 하나가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다. 백병부, 강세창, 김선혜, 신수희, 신호현, 이옥범, 정경숙, 정선희, *학습부진학생지도 전담강사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 정책연구보고 2011-58,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1.
- [20] 교사 및 동료와의 관계가 학생의 학습 태도 및 학습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오상철, 이화진, 장경숙, *학습부진 학생 지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연구: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RRI 201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 [21] CREDE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

습 기준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강화'와 '언어와 문해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과 수업'을 우선적으로 제안하였다. C. E. Sleeter and C. A. Grant, 문승호, 김영천, 정정훈(역), *다문화 교육의 탐구: 다섯 가지 방법들*, 아카데미프레스, 2009.

[22] 이화진, 오상철, 김태은, 김영빈,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성과 분석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지원 체제*, 연구보고 CRI 2011-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23] 이화진, 김민정, 이대식, 손승현,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 탐색*, 연구보고 RRI 2009-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저 자 소 개

구 영 산(Youngsan Goo)

정회원



- 2011년 10월 ~ 2015년 3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2015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 언어 교육 정책, 교육 소외 청소년을 위한 국어 교육, 언어 교육 질적 연구방법론